



“당신의 척추는 건강합니까?”

풀러턴 <조이척추신경병원>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몸에 좋다는 음식들이 넘쳐나고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들도 정말 많이 개발되어 있다. 그렇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몸의 중추인 척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꼭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치아가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치아 건강을 점검 받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이다.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꾸준한 척추 관리의 척추 퇴행성으로 인한 목, 허리 통증, 그리고 팔 다리 저림 등을 예방하게 해 준다.

<조이척추신경병원>의 Joy H. Kim 원장은 “요즘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목, 허리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팔 저림, 등쪽의 따끔거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 <조이척추신경병원> Joy H. Kim 원장(오른쪽)과 스텝 멤버들.

면서 “그들 중에 대부분은 ‘선생님, 저는 목이나 허리는 전혀 안 아픈데 팔(또는 다리)만 저리고 아픈데 이것도 척추의 문제 때문인가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고 말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이런 증상은 모두 척추의 문제 때문에 나타난다. 더 정확히는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어디선가 눌렸을 때에 나타난다. 대부분 환자들의 경우 척추 디스크가 돌출돼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는 치료가 가능하다.

김 원장은 “의사로서 마음이 안 좋을 때 중 한 가지는 척추가 퇴행성으로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서 다리나 손에 힘이 없어지고 걷기조차 힘들실 때 오시는 나이 드신 어른들의 MRI 결과를 볼 때이다.” 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척추 문제는 소리없이 찾아오는 ‘Silent Killer’ 라고도 불린다. 환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선생님, 저는 척추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몇 주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못 걸겠어요’ 하고 속상함을 호소하며, 지팡이를 짚고 찾아오는 환자 분들도 계시다.”면서 “평소에 우리의 몸의 대들보인 척추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치아는 임플란트와 같이 새 것으로 바꾸어 가며 쓸 수 있지만 우리의 척추는 바꿀 수가 없다. 건강할 때 더욱더 관리를 해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해야 한다. 늦기 전에 척추 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척추 교정을 통해 척추의 퇴행성을 막을 수 있다.”면서 디스크 문제로 진단을 받았다면 디스크 치료 전문 병원인 <조이척추신경병원>을 방문해 상담



▲ 최첨단 무중력 감압 치료기 DRX-9000

을 받아 볼 것을 권했다. <조이척추신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된 환자들의 소개로 남가주 각지에서 <조이척추신경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 최첨단 무중력 감압 치료기 보유 ... 메디케어 적용 치료도

<조이척추신경병원>은 촬영과 동시에 판독을 할 수 있어 진단의 시간을 단축하며 정확하고 세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첨단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과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추간관 병변 부위에 감압 환경을 조성하여 근육과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밀려난 디스크를 통증 없이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최첨단 무중력 감압 치료기 DRX-9000을 갖추고 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도 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 받을 수 있다.

▶ 문의 : (714) 449-9700
▶ 주소 : 1401 S. Brookhurst Rd. #103 Fullerton, CA 92833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러 KUNI횃집으로 오세요!!



(714) 752-6658

www.kunisashimi.com

7550 Orangethorpe Ave., E100

Buena Park, CA 90621



KUNI

SASHIMI HOUSE

OPENING HOURS

Mon-Sat: 3PM-12AM

Sun: 3PM - 10:30PM